

지역 소식통

정읍시, 40석 이상 식당 시설개선 관광식당 확충

정읍시가 맛있는 음식을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먹을 수 있도록 관광식당 확충에 나선다.

시는 올해 사업비 3억5,000만 원을 투입, 국내외 관광객의 수용 여건을 높이고 쾌적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대형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인식 테이블형 관광식당을 확충하고, 경기 불황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의 피해 극복과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들의 시설개선 비용 부담을 줄이고, 향후 외국 관광객의 유입에 대비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끌어올려 쾌적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주 사업 내용은 음식점 내 좌식 테이블을 인식 테이블로 전환하는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의회, 정읍시지키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정읍시의회(회장 고경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용산역과 성북구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제에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읍시 고향사랑기부 홍보에 나섰다.

정읍시 의원들은 9일 용산역을 찾은 서울 시민들과 귀성, 귀경객에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을 전달하며 많은 관심과 고향 사랑의 마음을 담아 기부 동참을 당부했다.

또한, 10일에는 정읍시와 자매결연 도시인 성북구청 이숙로 구청장을 방문하여 누구나 마음껏 고향에 사랑을 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통해 상호 기부문화 확산을 응원하며 서로 돈독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백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정읍=김대환 기자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지원

정읍시, 가구당 최대 3000만원 지원 · 연이율 2% 2년 거치 4년 균분 상환

정읍시가 농업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을 지원한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 기반을 확보해 생계자금에 부족한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이다. 시는 올해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비 7억 2천만 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2년 이상 지역 내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으로

농자재를 구매하는 등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조건은 가구당 3천만 원 이하로 2년 거치 4년 균분 상환(연이율 2%) 조건이다.

융자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오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지원금은 수탁금융기관의 대부분 심사 기준에 따라 지원되므로 사전에

농협의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융자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정읍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등 결격사유 등을 심의 후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이 농가의 자립 기반 확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지역 내 16개 농가에 2억 6천만 원의 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난 10일 부안군 계화면과 변산면에서 창신비상 2023 군민소통대회가 열렸다.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계화 · 변산면, 창신비상 2023 군민소통대회 성료

지난 10일 부안군 계화면과 변산면에서 창신비상 2023 군민소통대회가 열렸다.

먼저 권익현 부안군수는 계화종합복지센터에서 창신비상 2023 군민소통대회를 열고 변정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위한 군정비전을 공유했다.

행사에 앞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계화면체육진흥회(회장 박병무)와 김중호 사회단체협의회(회장)가 각 1백만원씩 장학금을 기탁하고, (주)이앤글로벌 윤서연 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 1백만원을 기부했다.

또한 계화면 승격 40주년을 기념하고 2023 찹바리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기념영상을 시청하며 케이크 커팅식을 갖기도 했다.

권익현 군수는 주민들과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갖고, 신창 · 계화3마을 경로당과 농어촌도로 313호와 창북 회전교차로를 방문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사업 현장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변산면에서 열린 창신비상 2023 군민소통대회는 주민자치위원회 김현채 위원장과 격포리 죽막마을 정상열 이장의 부안군 근농인재육성 장학금과 변산항우 양석민님의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으로 시작해 2022년 주요 성과와 2023년 추진계획 보고, 군정비전 공유,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해답을 구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변산면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관광도시 변산면을 틈바꿈 시키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격포항 권역다위 거점개발사업 등 군 주요 투자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변혁의 원동력 3up 특화사업 4가지를 적극 추진하여 해변 무드나잇 조형설치를 통한 포토존 구성 등 특색있는 관광콘텐츠 확충 및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여 사계절 아름답고 즐거운 관광지로 꾸미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코로나19 잠재적 치료 가능성 연구

바이오엔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논문 국제면역약리학회지 2023년 2월호 발표

가능성소재(식품, 의약품, 동물약품) 개발전문기업인 바이오엔(주) 최고 기술책임자 이우송 박사팀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가능성바이오소재연구센터팀이 공동으로 덴큐민스플러스(TSP)라 불리는 커뮤노이드 복합체가 빠른 속주 광범위 면역회복 현상과 항산화작용에 따른 코로나19에 대한 잠재적 치료 가능성을 연구한 논문이 국제면역약리학회지 2023년 2월호에 발표가 되었다.

해당 논문은 우선 TSP는 인체 독성을 야기할 수 있는 화합물(CTX) 부여에 의한 세포 독성 예방 및 병원체에 대한 방어 면역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면역세포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고, 알파 병원체(바이러스 및 박테리아 감염증)에 대한 방어 면역을 필수 불가결한 선천면역세포(호중구, 수지상세포, 대식세포, 및 자연살해세포) 및 후천면역(Th1 및 세포독성T세포; CTL)의 활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점과 강력한 항산화 효능을 특징으로 꼽았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코로나19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잠재적 치료효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이끌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SARS-CoV-2 헬스터 감염모델 전임상 모델 평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가능성을 도출해 임상적 사용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천연수용화제(seviod) 및 마이크로파(microwave)를 이용해 개발된 수용화 커뮤노이드 복합체(덴큐민스플러스 TSP)는 대략 100 nm 크기로 완전 투명한 수용성복합체로 이뤄진 것이 특징이다.

연구진 관계자는 "TSP는 바이러스 증식 및 병리학 증상을 유의미하게 개선시킬 수 있었다. TSP의 면역학적 특성(면역증진)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시하고, 코로나19 및 다양한 바이러스 뿐 아니라 암 및 박테리아 감염증 등에 대한 새로운 치료 또는 예방제로서의 잠재력을 제공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임상 연구에 부여된 물질은 강황 원료에서 분리한 커뮤노이드인 심황색소이다. 이 식품 소재를 천연용해제인 스테비올배당체로 수용화한 것이 '덴큐민스플러스'이다. 식품소재로 식약처 등록은 물론, 미국 FDA의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등급으로 안전성이 인정된 것도 특징이다.

또한 TSP의 안전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정부안전평가관에서 랫드를 이용한 단회 경구투여 후 발현되는 급성독성을 조사한 결과 치사량은 암수모두에서 2,000 mg/kg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KIT 시험번호 : C22017). 또한 13주 반복독성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코로나19 감염 증세의 헬스케어 해당 물질을 투여한 결과 폐부종 및 총혈 등 폐렴병변에서 효과를 얻었다. 특히 흡수력이 뛰어나고, 체내 분포 이후 약 4시간의 대사 시간을 거쳐 배출되는 결과로 치료효능을 높이는 효과도 확인했다.

한편 덴큐민스플러스의 원천기술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노비즈센터에 입주한 소재개발전문기업인 바이오엔(주)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으로부터 이 전방위 치료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바이오엔(주)은 임상승인 계획(IND)을 신청하고 공식 임상을 거쳐 누구나 실생활에서 먹을 수 있게 면역기능 개별인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노인복지관, 일자리 지원사업 시작

고창군노인복지관의 노인일자리사업이 10일 심덕섭 고창군수, 임정호 고창군의회 의장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일자리 사업을 위한 발대식을 열었다.

고창군노인복지관 공익형노인일자리

사업은 11월까지 하는 기간제 사업이다.

복지관에선 5개 사업단별로 △학교 복지관에선 5개 사업단별로 △학교주변 돌봄(학교주변 정비) △공공 및 복지시설 어르신 행복드림(경로사당 청소 및 소독) △일광욕공

보육꿈나무 도우미(지역아동센터 주변 정비) △은빛물결 행복나눔 도우미(경로당 문화활동) △투게더 워드 동행 등으로 모두 282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한다.

올해 고창군 전체의 노인일자리사업은 242명(85억300만원 예산부인)의 어르신들이 올해 1월부터 11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희망나눔캠페인 모금액 250% 초과달성

전북 고창군이 '희망2023 나눔캠페인'에서 총7억4300만원을 모금액, 목표대비 250% 초과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함께하는 나눔, 지속 가능한 고창'을 슬로건으로 지난해 12월1일부터 82일 동안 진행됐다.

당초 '희망2023 나눔캠페인'은 3년째 지속된 팬데믹과 고물가 고금리의 경제 한파로 모금액이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위기상황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들의 삶을 돌아보는 고창군의 따뜻한 마음과 기업,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캠페인은 1호 기탁자인 석정래저주식회사에서 1000만원을 쾌척하며 순조

롭게 출발했다.

유치원생들의 저금통부터 손주들을 위해 아껴둔 어르신들의 쌈짓돈, 수년째 나눔을 이어온 기관·단체 등의 지속적인 후원 등 곳곳에서 나눔의 손길이 잇따랐다.

성금은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지역 내 저소득 계층이나 복지 사각지대 이웃, 취약한 사회복지관·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일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희망2023나눔캠페인'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때일수록 나눔을 통해 함께 하고자 하는 군민들의 따뜻한 성원 덕분이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